

01 교회소식

“GCN은 최고의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권 기독교방송인들의 축제 '2012 코이콤 총회 및 박람회'에 참가한 GCN 방송.

02 생명의 말씀_ 영적인 사랑 시리즈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것

어떤 열악한 환경이나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할지라도 항상 상대 유익을 먼저 구해야 영적인 사랑을 이룰 수 있다.

03 기획특집_ 창조의 비밀 1

첫 사람 아담을 빚으신 하나님 마음

사랑을 주고받을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첫 사람 아담을 친히 빚으신 하나님 마음을 느껴보자.

04 선교

싱가포르·말레이시아 화교 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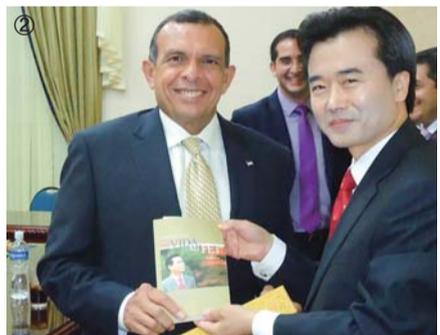
대만, 중국, 동남아시아, 호주, 유럽 화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난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집회.

만민뉴스

제554호 2012년 10월 21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GCN 방송, 코이콤 총회 및 박람회 참가

스페인어권 23개 TV·라디오 방송사와 협력 체결, 영향력 확대



코이콤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스페인어권 기독교방송인들의 모임으로 1992년 설립해 매년 박람회를 개최하며 라틴아메리카의 영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사진은 온두라스 산 페드로 솔라 시 에벤에셀교회에서 열린 코이콤 총회 개막식①, 개막식에 참석한 포르피리오 로보 온두라스 대통령에게 이재록 목사의 자서전을 전달하는 김진홍 국장②, GCN 방송 부스를 방문한 페르난도 솔라레스 코이콤 이사장③과 방문객들④~⑤.

우리 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중남미에 1996년 '아르헨티나 한인 축복 대성회 및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으로 온두라스, 페루 연합대성회 등을 통해 따르는 기사와 표적, 그리고 권능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했다.

이후 방송과 문서를 통해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끊임없이 공급함으로 영적 성장을 돕고 있다. 더불어 현재 중남미의 많은 자·협력교회와 함께 사역하고 있다.

이재록 목사의 설교와 하나님 권능을 체험한 간증, 수준 높은 기독교문화를 토대로 제작한 GCN 방송(이사장 이재록 목사) 프로그램은 스페인어권 최대 기독교 방송사인 엔라쎬의 3천여 개의 케이블 채널뿐만 아니라 온두라스 JBN, 엘살바도르 Ch17, Ch67, 코스타리카 크리스토티비전 등을 통해서 중남미

전역에 방송되고 있다. 또한 이재록 목사의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신앙서적은 미국 뉴에바 비다, 브라질 나오스 출판사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이 가운데 GCN 방송(www.gcntv.org)은 지난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중앙아메리카 중부 온두라스에서 열린 스페인어권 기독교방송인들의 축제 '2012 코이콤 총회 및 박람회'에 참가했다. 20개국 9천여 명이 참석한 개막식에는 포르피리오 로보 온두라스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계 및 교계 인사들이 참가했으며, GCN 방송 출장팀은 대통령과 만남을 갖고 이재록 목사의 사역에 대해 전했다.

이날 많은 참석자로부터 "2002년 이재록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온두라스 연합대성회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엔라쎬와 JBN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꾸준히 시

청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개막식이 열린 에벤에셀교회 헤르만 폰세 목사는 "이재록 목사님 기도를 받고 축복받아 지금의 성전을 신축하고 크게 부흥했으며, 이 목사님의 사역을 배우기 위해 만민중앙교회 방문을 사모하고 있다."고 전했다.

GCN 방송 부스에는 코이콤 이사장 페르난도 솔라레스 목사를 비롯한 방송 관계자 및 교계 지도자 등 많은 방문객이 HD로 제작된 고화질 프로그램과 이재록 목사의 스페인어 저서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방문객들은 "GCN 방송 프로그램은 최고의 복음 사역이다.",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 이 책들이 온두라스의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02년 코이콤 가입 후 매년 총회 및 박

람회에 참가해 중남미 기독교방송인들과 교제하며 협력관계를 돈독히 유지해온 GCN 방송은 이번 행사를 통해 12개의 TV 방송사, 11개의 라디오 방송사와 추가 협력을 체결했다.

한편, 출장 시 만난 많은 사람으로부터 온두라스 연합대성회 때 협력한 뒤 큰 축복을 받고 있다는 행복한 간증을 들을 수 있었다. 연합대성회 기간 중 1일 부흥성회가 열렸던 라코세차교회 미사엘 아르헤날 목사는 "이재록 목사님께서 다녀가신 후 가톨릭이 우세한 온두라스에서 개신교가 크게 부흥했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게 됐다. 우리 교회는 2만 5천 명을 수용 가능한 중남미 최대 규모로 성전 완공을 마쳤고, 방송 사역도 활발히 이루고 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상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4~5)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의견을 강하게 주장은 하지 않지만 상대의 견이 나와 맞지 않으니 타박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남의 의견에 경청하고, 설령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기쁘게 따라 주는 사람도 있지요.

이처럼 각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사랑이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만일 의견 대립으로 다툼이 생기고 화평이 깨졌다면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 양보하고 상대 입장을 생각하면 화평할 수 있는 일도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화평이 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상대에게 맞추고자 하듯이 사랑하면 자기 유익보다는 상대 유익을 구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신보다 자녀가 더 잘 먹고 잘 입기를 원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늘 상대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2. 상대 유익을 구한 아브라함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 유익을 구해 주는 것은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사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당장 손해를 보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좇아 상대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과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읜 롯은 아브라함을 아버지와 같이 믿고 따랐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브라함으로 인해 더불어 축복을 받게 됐지요. 그 소유가 얼마나 많았던지는 금뿐만 아니라, 많은 육축으로 인해 물을 놓고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가족 간의 다툼을 막기 위해 거처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취하도록 선택권을 주지요. 창세기 13:9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합니다. 이에 롯은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요단 들을 택해 떠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롯은 자신으로 인해 축복을 받았고 질서상 자신이 삼촌이고 윗사람이니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형식적으로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다면, 선뜻 자기 유익을 좇아 떠나는 롯이 괴심할 수 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음 중심에서 조카가 더 좋은 땅을 택하기를 원했기에 롯과 화평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

다. 이처럼 상대 유익을 구한 아브라함은 재산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든지 주변 나라 왕들로부터 존중을 받으며, 그의 선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벗이라는 칭함까지 얻었습니다. 이처럼 범사에 상대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상대 마음을 헤아려 맞춰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 주는 기쁨은 그 어떤 기쁨보다 큼니다. 미운 사람에게 주는 것은 어렵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지요. 주면서도 행복합니다. 그러니 범사에 자신보다 하나님과 교회, 자신보다 이웃과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의 유익을 구하는 영적인 사랑을 소유해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3. 자기 유익을 구치 않으려면

간혹 교회 생활에 치우쳐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식하니까 힘이 없다며 직장 업무에 지장을 주기도 하고, 교회 일에 충성한다며 가족은 등한시하지요. 또 주부가 가정에 소홀하고 교회 일에만 열심 내거나, 학생이 학업은 게을리 하고 교회 모임에만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은 놀거나 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기 유익을 구한 것입니다. 주의 일에 충성했어도 온 집에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해야 하고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했지만, 당연히 해야 할 또 다른 분야는 하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가 범사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려면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마음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관에 따라 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의뢰해 성령의 인도와 주관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에서 악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마음에 영적인 사랑을 이루면 상황에 따라 선의 지혜가 임해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지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서 마음껏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녀로서 믿지 않는 이웃이나 가족에게도 사랑을 받으려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신혼부부가 축복기도를 받으러 오면 “서로 상대 유익을 구하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 줍니다. 서로 자기 유익을 구하면 화평한 가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 주는 것, 자신의 유익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은 그 어떤 기쁨보다 크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사랑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곧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뿐 아니라 자신을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유익을 먼저 구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피하고 싶고 싫은 마음이 든다면 아직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음을 깨우쳐야 합니다.

어떤 열악한 환경이나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 해도 항상 상대 유익을 먼저 구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영적인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사랑하고 희생함으로 진정 상대 유익을 구해 줄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시대가 흐를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상대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갖난아이들이 먹는 분유에 유해 물질을 넣는가 하면, 원천 기술을 빼돌려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등 파렴치한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처럼 이기주의가 팽배한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사랑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1. 영적인 사랑은 상대 유익을 구하는 것

우리 일상을 들여다 보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상대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령, 동료들과 식당에 가서 한 가지 메뉴로 정해야 한다고 합시다. 이때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상대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기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지만 상대가 민망하지 않도록 맛있게 먹는 사람도 있지요.

또 다른 예로 행사를 준비하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때 자신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설득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교회 오시는 길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일마다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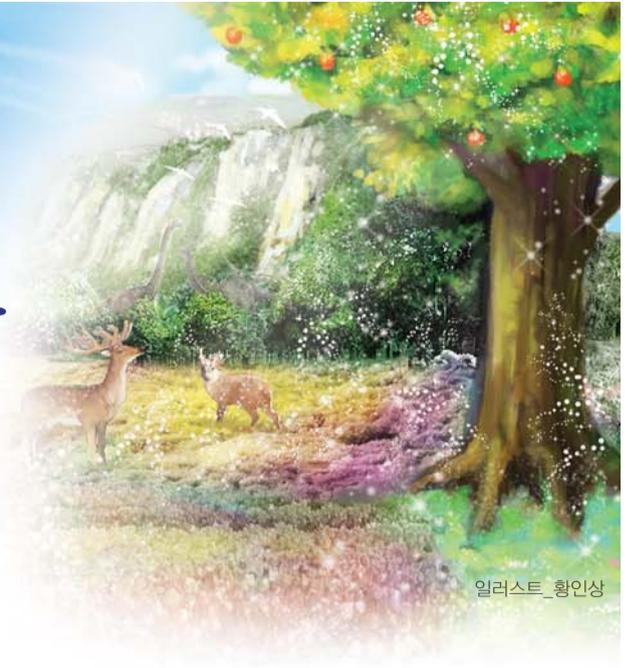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바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열왕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간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간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사람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
 나의 능력의 손길이 하나하나에 닿아 기관과 모든 것을 만들고 있음이나니
 아름답게 지어지는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으리로다.
 그 후손과 그 대대의 후손을 통하여 나의 아름다움과 인자함과 온유함과
 나의 사랑 많음과 전지전능함이 선포되리로다...

일러스트_황인상

하나님 손길로 친히 빚으신 첫 사람 아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 2:7)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근본 재료는 과연 무엇이였을까? 변치 않는 금이나 단단한 철이 아닌 흙과 물 곧 참 진흙이었다. 점토로 어떤 형상을 만들 듯 사람을 지으셨는데 머리카락, 눈썹, 피부 등 세세한 부분들은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피조물에 대한 설계도를 이미 갖고 계셨다. 단지 흙으로 사람의 외형만을 빚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오장육부와 뼈도, 피가 통할 수 있는 핏줄

과 완벽한 기능을 갖춘 신경조직도 이미 설계돼 있으셨다. 사람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끝에서는 근본의 빛이 끊임없이 나갔고, 손으로 빚으시는 대로 그 부분은 신체로 온전해졌다.

예를 들어 머리 부분을 손으로 빚으시면 머리카락, 눈, 코, 입, 귀 등을 따로 만드시지 않아도 이미 설계된 대로 얼굴 위쪽에 눈 두 개, 중앙에 코 하나, 그 아래쪽에 입 하나, 얼굴 양쪽에 귀 하나씩, 그 개수와 위치, 모양과 기능까지

그대로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첫 사람 아담의 몸은 비로소 살아 움직였다. 여기서 ‘생기’란 ‘근본의 빛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다.

마치 멈춰 있던 기계에 전기가 공급되면서 일시에 가동되는 것과 같이 아담에게 생기가 들어가자 심장이 뛰면서 온 몸에는 피가 돌기 시작했고 모든 기관과 세포들이 활동을 시작했다.

참 자녀를 얻기 위한 놀라운 계획!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 2:16-17)

생령 아담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 아담에게 단 한 가지 금해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에덴동산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신성을 갖고 계시기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더불어 인성을 지니셨기에 희로애락을 느끼며 사랑을 함께 나누기 원

하신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참 자녀를 얻으시고자 사랑을 창조하셨다.

물론 하나님 주위에는 천사와 같은 많은 영적 존재가 있었지만 불과 맺을 제외하고는 사랑을 주고받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성, 즉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었다. 단지 로봇과 같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할 뿐 희로

애락을 느낄 수 없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

사람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쁜 인형이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준다 할지라도 그 인형이 자신이 낳은 자녀를 대신할 수는 없다. 차라리 말썽을 부려도 부모를 알아보고 사랑도 표현할 줄 아는 자녀가 훨씬 사랑스러운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원하셨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다.

오랜 염원 속에 담긴 기대와 사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사 43:7)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경작을 계획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천지만물을 지으셨다. 그 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를 위해 아름답고 풍요로운 에덴동산을 창설해 부족함 없이 살도록 배려하시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해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 결국 그의 후손 모두가 죄인이 돼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장차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

순종할 것을 아셨기에 만세 전부터 인간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바로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랑을 베푸셨다. 범죠했던 아담의 후손들을 위해 화목제물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으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인

자함, 온유함과 크신 사랑, 그리고 전지전능함이 선포될 것을 바라시며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 오셨다.

사람의 입을 만드시며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셨고, 귀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다. 또한 눈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러르고 만물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원하셨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느낌으로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그 기대와 소망을 이뤄드리는 기쁨의 자녀들로 나와지기를 바란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10
October

주요프로그램 안내!
Programming Guide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1차 영혼육 2-6
- 사랑하시는 제단 (담)
- 믿음을 처방하시니 16-17
- 창세기 강해 24-28
- 천국 11-15

GCN TV설교

- 이수진목사의 '육과영 5-9'
- 정구영 목사의 GCN TV특강 '십자가의 도 2-6'
- 이미영 목사의 '진실'
- 이수진목사의 '목자의 열매'

찬양 프로그램

- 민민중앙교회 창립 30주년 축하공연 '하늘과 땅'
- GCN 파워프레이즈2!

GCN 특선영화

- 십계 1,2부

24시간 연중무휴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A/S 문의 **1577-2073**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권능의 손수건 집회

본격적인 화교 선교 해외에 정착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본국과 유익적 관계를 유지하는 중국인 또는 그 자손을 '화교'라고 한다. 이들은 홍콩, 대만을 포함해 전 세계에 약 1억 명이 퍼져 있으며, 경제력은 4조 달러(약 4,500조 원)로 추산된다.

권능의 손수건 집회(행 19:11~12)가 화교를 대상으로 지난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다. 강사로 선 우리 교회 부목사 이성철 목사는 손수건 집회와 더불어 목회자·일꾼 세미나를 통해 성결 복음을 전하고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실히 나타냈다.

본격적인 화교 선교의 시작이 된 이번 집회는 위마리 목사(싱가포르 크리스천 기도원 원장, 상단 우측사진 맨 왼쪽)가 우리 교회 선교팀을 초청해 대만, 중국, 동남아시아, 호주, 유럽 등지에 있는 화교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위마리 목사는 2007년,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 『천국』(상)(하)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아 우리 교회를 방문한 후 교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집회 뒤에는 이재록 목사 권능의 사역과 저서를 통해 은혜받은 싱가포르의 간전정, 류용언 부부와 황핑핑 선교사, 말레이시아 정 드보라 사장 등 물심양면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들의 헌신이 있었다.

싱가포르 지난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개최된 집회는 연인원 760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싱가포르의 사인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황핑핑 선교사(하단 좌측사진 맨 왼쪽)의 준비찬양으로 시작된 첫 집회는 8개국 목회자와 일꾼들, 싱가포르 일꾼들이 펼친 개막행사로 그 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교회 빛의소리중창단의 공연 후 위마리 목사는 설교를 통해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자."며 "23년 전 환상으로 휴거 장면을 본 뒤 주님의 재림을 예비해 깨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전하였는데, 만민중앙교회 방문 시 본당의 휴거 그림이 그 장면과 똑같이 매우 감동스러웠다."고 전했다.

그 후 이재록 목사의 권능 사역이 담긴 '권능' DVD가 상영됐다. 성도들은 하나님 역사에 연신 감탄하며 기도를 요청했다. 이에 이성철



권능의 손수건을 들고 메시지를 전하는 이성철 목사(좌), 말라카 집회 후에는 감사패를 받았다.



빛의소리중창단의 아름다운 공연과 8개국 목회자, 일꾼들이 준비한 싱가포르 집회 개막행사



750여 명의 화교 성도와 목회자들이 참석한 말레이시아 말라카 생명교회 집회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말레이시아 이포 도시 교회 연합집회와 싱가포르 사인 오디토리움 집회



손수건 기도로 많은 사람이 치료받았는데, 시력 회복 후 착용하던 콘택트렌즈를 보이며 간증하는 성도들도 있었다.



목사가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자 잘 견지 못하던 사람이 견고, 어깨와 허리 통증 등 질병이 치료됐다.

9월 14일 오전, 오후 두 차례 집회에서는 설교 후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줄 때 보행장애, 시력 저하 등 치료받은 간증자들이 줄을 이었다. 15일, 퀄리티 호텔에서 열린 목회자 및 일꾼 세미나는 호주, 벨기에를 비롯한 8개국에서 약 19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본 교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희망하며 대만, 북방, 동 말레이시아로 선교팀 파송을 간청했다. 16일에는 싱가포르 만민교회 개척예배를 드림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

말레이시아 9월 18일, 선교팀은 말레이시아 만민출판사(사장 정 드보라)를 방문해 이재록 목사 저서를 통한 문서선교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저녁에 열린 말라카 생명교회 집회는 750여 명이 모였고, 손수건 기도로 많은 사람이 치료돼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19일, 오전에는 위마리 목사가 운영하는 '말라카 기도의 집' 방문 후 수도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했다. 그날 저녁, 선은교회 집회에서는 빛의소리중창단의 아름다운 공연과 '권능' DVD 상영으로 성도들의 갈채가 끊이지 않았다. 20일 저녁 집회에서는 기도받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치료받아 영광 돌렸다. 이날 오후 1시에는 목회자 및 일꾼 세미나가 진행됐다.

21일에는 이포 도시의 선리 대형 연합회에서 5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교회 연합집회가 열렸다. 한 목회자는 말레이시아 기독교 부흥과 반전의 역사, 그리고 성결한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국에서 선교팀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22일 저녁에는 성 베드로 대교회에서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가 열렸다. 이날 '이재록 목사 초청 2009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DVD를 상영했는데,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번 선교에서 화교 성도들의 성결 복음과 하나님 권능에 대한 사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재록 목사 저서 830여 권이 판매됐으며, 집회 후 '권능' DVD 유통과 집회 요청 등이 쇄도하고 있다. 이후 전 세계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펼쳐질 화교 선교가 기대된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림.
- 부산민생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림동 118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민생결교회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교회 충청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청남 서산시 잠룡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교회 충청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라민교회 충청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교회 충청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민교회 충청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민교회 충청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전사거리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미산민생결교회 경북 청주시 미산 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민교회 경남 말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생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정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민생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민생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미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강남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